



조합 정상화, 양록인들의 중지 모일 때 가능하다

최근 한국양록농협과 관련된 언론사의 사건보도를 접하며 잘못 전달되거나 일부분만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어 사실을 양록인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바로 잡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우선 양록농협과 관련돼 전국 양록인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양록농협 조합장으로

조합문제가 언론에 다루어지고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송구스럽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조합에 관련된 기사들이 관련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많은 조합원들이 궁금함과 불안감으로 문의전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알려드려 궁금증과 불안감을 풀어드리는 것도 조합장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들어 양록경기가 차츰 좋아지는 상황에서 조합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 전달은 양록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재기의 기틀을 하나둘 마련해가고 있는 조합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한국양록 지면을 통해 사실을 전합니다.



전 병 설
〈한국양록농협조합장〉

사족(四足)을 잘라내고 지적한 조합 적자

최근 양록관련 모 전문지에서 지난해 조합 적자가 10억원이라는 내용을 기사화하며 양록농협의 불안한 미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지가 지적한대로 지난해 조합 적자는 10억원입니다. 그러나 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황 및 내용은 철

저히 잘라내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조합의 존립목적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조합이 어떠한 이유로 적자가 발생했는지를 미리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제가 최초 조합장으로 선임될 당시 조합의 누적적자는 99년 20억, 2000년 26억원으로 이미 총 46억의 적자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자부문에 대한 이자도 상당했지만 더 큰 문제는 재고자산이었습니다. 10톤을 상회하는 녹육, 건녹용 1만3천여냥, 백두대간(녹용차) 3만9천박스, 다량의 생녹용은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압박하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재고자산은 은행통장 처럼 수중에 갖고만 있다고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관비용 지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만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욱이 조합이 갖고 있는 재고자산은 모두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으로 유효기간이 끝날 경우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끝이 나고 자산으로 잡혀있던 부분은 고스란히 적자로 넘어가게 되는 품목들입니다.

시급한 재고자산 처리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제품 공급처를 지속적으로 확보, 당시 시기에 맞춰 납품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생 녹육은 전량 소진했으며 녹육은 3톤, 백두대간은 1만8천 박스 정도가 남아 조합의 경영 수지를 압박하던 재고자산을 상당량 소진시킨 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지난해 조합의 적자 중 상당수가 재고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 녹육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kg당 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제품들이 현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조합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금액과 현 시가와와의 차액이 지난해 기적자부분에 대한 이자와 더불어 조합 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입니다.

99년 20억, 2000년 26억의 적자가 지난해에는 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재고자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당장은 적자금액을 더욱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재고자산 처분은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 동안 누적됐던 적자가 컸던 만큼 흑자조합으로의 변신은 시간을 필요로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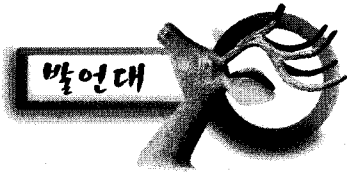
니다. 그 시간은 건실한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합의 생채기를 도려내는 인고(忍苦)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탕 제조판매업체 G사와의 사건 경위

조합의 L이사께서 문제를 제기한 G사와의 가공제품 판매계약도 조합의 재고자산과 그 맥락을 같이합니다.

재고자산을 처분키 위해 여러 업체들과 상담을 실시하던 중 가공제품 제조판매업체인 G사가 타업체보다 비교적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가공제품을 1년간 계약한다는 조건으로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녹육과 백두대간을 전량 인수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G사에서는 조합이 제시하는 백두대간의 가격이 너무 높다며 사슴엑기스 1박스의 수수료나 백두대간의 가격중 하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파견된 경영관리역과 조합 담당 상무와 상의한 결과 수수료를 일정기간만 낮게 책정하는 대신 백두대간 가격을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조합 측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후 G사와 가공제품은 흡쇼핑, 케이블 TV를 통해서만 판매한다는 조건을 첨부해 2001년 4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G사에서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관련 제품의 방문판매를 실시하는 계약 위반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실을 조합이 접한 것은 2001년 8월입니다. 조합에서는 즉각 G사와 계약상 미비했던 점에 대해 보충계약을 실시하고 계약 위반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G사는 보충계약과 시정요구에도 여전히 방문판매를 실시하고 최초 계약 물량보다 많은 량을 위법으로 제조 판매하는 등 조합과의 계약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10월 이사회를 소집하여 G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지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G사가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고소를 취하고 그 동안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가 처분 신청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경영상의 시행착오 사죄, 문제제기의 순수성에는 의구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G사와의 가공제품 판매계약은 조합의 재고자산을 처리기 위해 택한 궁여지책의 방법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G사의 위반행위로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가공제품 판매계약을 실시한 G사에 대해 감시 관리 활동을 나름대로 실시했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하여 양록인 및 조합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조합의 L이사께서 제기하는 불법과 의혹은 단 한 점도 없다는 점을 뚜렷하게 밝혀드립니다.

L이사께서는 올 초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G사와의 계약이 불법이며 조합장의 직권남용, 반대급부 의혹 등을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인쇄물을 대의원 및 양록전문지에 배포,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첫째로 L이사께서는 G사와의 계약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계약을 실시한 불법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조합장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G사와의 계약은 조합의 담당 상무와 농협중앙회에서 파견된 관리역과 함께 충분히 의논한 후 결정된 사항입니다. 가공제품계약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도 지역본부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둘째 L이사는 금번 계약으로 조합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G사와의 계약으로 조합에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치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조합장실을 개인사무실처럼 이용하여 비디오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G사에서 는 최초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를 위해 판매기 위해 촬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으며 이에 촬영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절대로 방문판매에 사용하라고 촬영을 허락한 적은 없으며 사무실 사용에 있어서도 공사구분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L이사께서는 금번 계약에 있어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사명감을 갖고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제 자신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G사와 떼뗄하지 못한 관계였다면 G사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취하는 극단적 행동은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조합 경영중에 발생한 내부 문제에 대해 중지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조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건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는 L이사의 순수성에 솔직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L이사는 녹취까지 실시하는 공식석상인 조합이 사회에서 “공석인 수석이사를 본인이 반드시 맡아야 하겠으며 조합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그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말한 경력이 있어 금번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순수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진정 아끼고 사랑한다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시키려 노력하며 발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임원으로서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록인들의 중지 모일 때 조합 발전도 가능

지난해 조합은 고임금 간부직원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조합을 위해 봉사해온 직원을 퇴사시키는 것은 개인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할 때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조합 회생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조합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소비자에게 직접 다려주는 녹중탕 사업이 안정과도에 들어섰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즉석에서 녹중탕을 생산,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신뢰는 물론 그 약효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현재 재주문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용사업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궈 지난해 중앙회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동참코자 조합홈페이지도 제작, 국내 양록산물에 대한 홍보는 물론 판매에도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조합은 그 동안 조합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재고물량을 상당량 처분했으며 이에 새로운 사업을 능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조합의 경영 수지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자긍심을 느낄 만큼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조합 임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조합의 앞날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행사가 준비한 현 시점이 조합 발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혹여나 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합을 흔드려는 의도가 자행된다면 이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체 양록인 차원에서 철저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양록업계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합의 재건에 대해 이견(異見)을 제시하는 양록인은 없을 줄 압니다. 지난 1년 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이 가진 충분한 잠재력을 엿보았으며 조합으로서의 만족할만한 역할도 곧 수행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조합장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양록인, 조합원, 조합임직원의 단결과 참여, 의욕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조합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 주시길 기대하며 또 호소하는 바입니다. **민국양록**